

남자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독일 전설' 클린스만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 지휘... 선수 시절 세계적 공격수 활약 자국 대표팀 월드컵 3위·미 대표팀 골드컵 우승 등 지도자로도 큰 족적

대한축구협회는 남자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59)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로 약 3년 5개월이다.

축구협회는 양측 협의에 따라 연봉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의 연봉(약 18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또 클린스만 감독과 논의해 그를 보좌할 코치진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클린스만 감독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제 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 일원으로 함께 활동했고, 독일어에 능통한 차두리 FC서울 유스강화실장이 어떤 역할로든 '클린스만 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임 기간 한국에 거주하기로 계약한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 입국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뷔전은 3월 24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평가전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에 보낸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한국 대표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끊임 없이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대표팀을 지휘한 훌륭한 감독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 아시아권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격수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고, 1988년과 1992년, 1996년에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유로)에

연속 출전했다. 이어 1990 이탈리아 대회부터 1998년 프랑스 대회까지 월드컵 본선에 3회 연속 나섰다.

특히 이탈리아 월드컵과 유로 1996에서 독일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다.

지도자로서도 굵은 족적을 남겼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자국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에서 3위의 성적을 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국 대표팀을 지도하며 2013년 북중미 골드컵 우승,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연합뉴스



야구대표팀, 칼바람 속 '컨디션 올리기'

WBC 전훈 고전... 다음달 3·6·7일 연습경기·평가전

사막을 가로질러 불어대는 찬바람에 가만히 있어도 손이 곱을 정도인데도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 투수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력으로 공을 던졌다.

야구대표팀은 27일 베이스캠프인 미국 애리조나주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사실상 마지막 합동 훈련을 치렀다.

28일에는 오전 훈련만 간단히 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현지시간 26일 오전에 내린 비로 LG 트윈스와의 연습 경기가 취소되면서 대표팀은 자율 훈련으로 컨디션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나마 타자들은 실내 타격 연습장에서 배팅볼 등을 때리며 땀방울을 흘렸지만, 투수들은 가림막도 없는 실외 불펜에서 강풍을 맞아가며 투구 수 늘리기, 제구 능력 키우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번 WBC에서 한국의 4강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호주와의 B조 본선 1라운드 1차전이 열릴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 선수들은 '추위 타령'을 뒤로하고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3월 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표팀이 희망을 거는 구석은 따뜻한 '돛구장'이다.

서울 고척스카이돛에서 치르는 3월 3일 SSG 랜더스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를 비롯해 3월 6~7일 WBC 조직위원회의 공식 평가전인 오릭스 버펄로스, 한신 타이거스(일본 오사카 교세라돛) 등 세 경기가 모두 추위를 잊게 하는 돛구장에서 벌어진다.

3월 9~13일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체코가 경쟁하는 B조 본선 1라운드도 역시 일본 도쿄돛에서 열린다.

대표팀 투수들의 공을 불펜에서 받은 포수 이지영(키움 히어로즈)은 "앞으로 모든 경기가 돛구장에서 열리므로 투수들의 컨디션도 크게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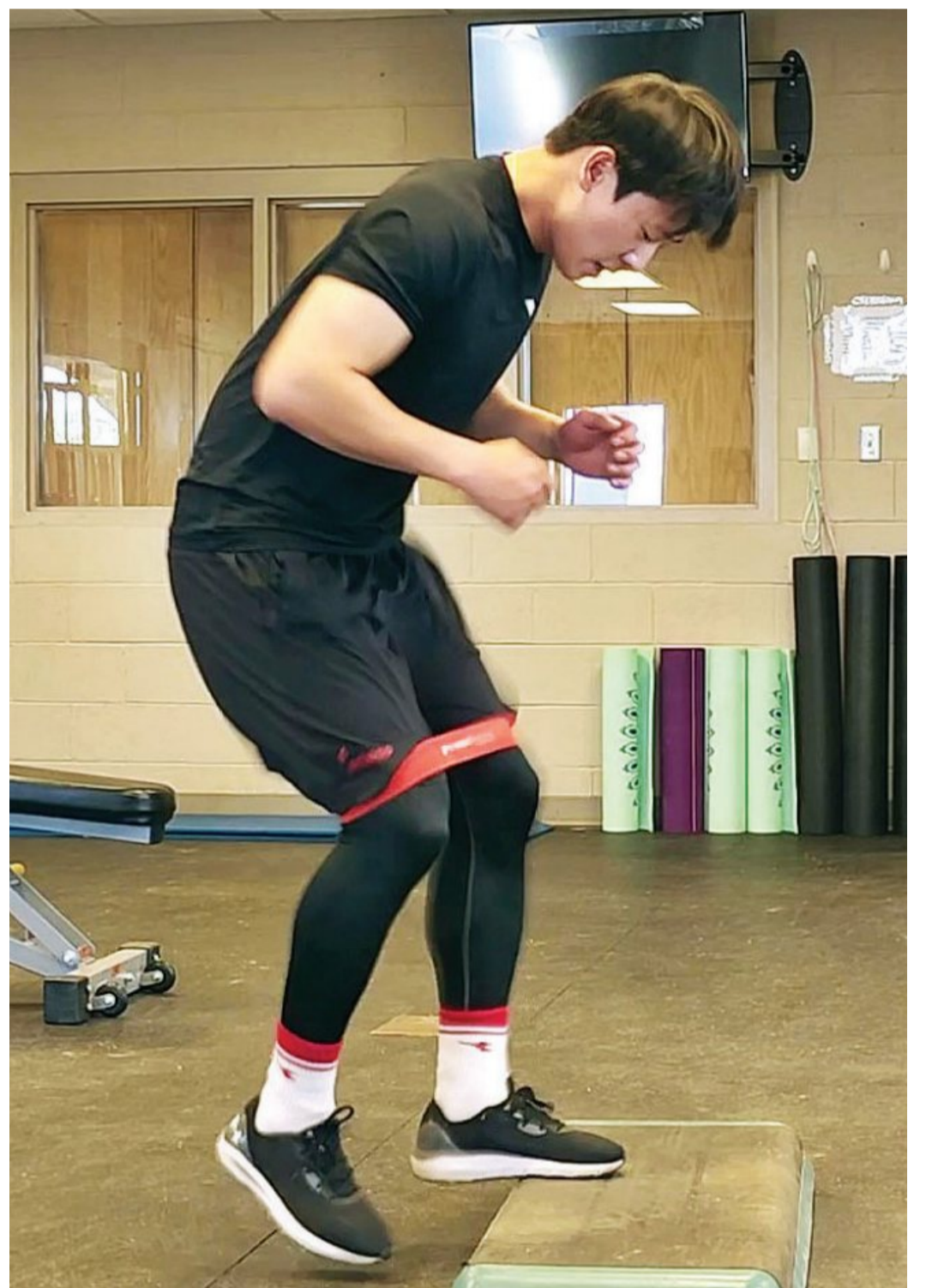
박찬호 "손목 부상 '암초' 근력으로 넘겠다"

KIA 애리조나 1차 캠프 마치고 함평서 시즌 앞 몸 만들기 주력 "힘 키워 야수가 못 잡는 공 칠것 투수진 완벽...올해 우승 기회"

"더 좋은 타자로 돌아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찬호가 잠시 숨을 고른다.

미국 애리조나에서의 1차 캠프를 마친 KIA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시즌 구상에 들어간다.

'악천후' 영향으로 연습 경기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실전 체제로 돌입하는 만큼 긴장감이 커질 캠프. 하지만 박찬호는 함평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애리조나 캠프에서부터 손목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만큼 무리해서 실전을 치르기도는 완벽한 상태로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손목 통증으로 오키나와 캠프 참가가 불발된 KIA 박찬호가 하체운동을 하고 있다.

박찬호는 급할수록 돌아갈 생각이다. 애리조나 캠프에서도 멀리 보고 시즌을 준비했다. 2023시즌을 준비하는 박찬호의 키워드는 '스트렝스(strength)'다.

박찬호는 "더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 스트렝스에 신경 쓰고 있다. 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타자가 되는 게 목표다. 기술적으로 지금 쉬고 있지만 트레이닝을 통해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박찬호는 130경기에서 나와 0.272의 타율과 함께 45타점, 42도루를 기록했다. 타석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박찬호는 두 번째 '도루왕'에도 등극했다. 하지만 만족은 없다.

박찬호는 "타격적으로 만족하는 건 사실상 타율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타율이 전부야 아니다. 출루율, 장타율 등도 중요하다"며 "내가 그리는 그림은 타구가 수비진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잡히던 타구에 힘이 더 실리고, 타구 스피드가 조금이라도 빨라진다면 좋을 것이다. 잘 쳤는데 외야가 쫓아가서 잡히는 게 분하다. 진짜 이 만큼인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분하다"고 이야기했다.

매년 경향이 더해지고 있는 수비는 큰 고민은 없다.

박찬호는 "수비수로서는 몸의 반응이나 다른 변화로 좋아지지보다는 생각이나 이런 걸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 많이 하면 할 수록 경기보는 눈도 조금씩 넓어지고, 우리 투수들과도 호흡을 맞춰가게 된다"고 말했다.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박찬호에게 올 시즌은 기회와 기대의 시즌이다.

박찬호는 "올 시즌이 정말 기대된다. 일단 우리 투수들이 너무 좋아졌다. 선발에서 외국인 선수들만 잘 던져주면 될 것 같고, (김)대우형이 온 것

도 되게 크다. 또 (김)기훈이가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작년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면, 전상현과 정해영도 있고 (장)현식이 헝가리 오니까 불펜은 완벽하다"며 "공격력도 의심할 게 없는 것 같다.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승권인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가을 경험도 박찬호와 KIA의 2023시즌에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박찬호는 "가을 야구 정말 재미있다. 응원 분위기, 몰입도가 다르다. 관중석이 뜨거워서 텐션이 떨어질 수 없다"며 "올해가 우승 찬스이기도 하다.

형들 나이고 있고 하나씩 올해가 진짜 중요하다. 한국시리즈가 너무 해보고 싶다. 또 '우승버프' 받아서 골든 글러브도 노려보고 싶다. 다른 경쟁자들한테 비해 부족하지만 팀 우승하고 기회 노려보겠다"고 웃었다.

또 "그동안에는 직업이니까 야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힘든 일도 많아서 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작년에 느꼈다. 올 시즌 꼭 좋은 모습 보이고, 우승에 도전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천하무적'



11승 2무...13경기 연속 무패 리그 1위...8개 팀중 무패 유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13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며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부산시철공과과 경기에서 29-25(18-10, 11-15)로 승리했다.

시즌 11승 2무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24로 2위 삼척시청(10승 1무 2패·승점 21)과 승

점차를 3으로 벌렸다.

리그 8개 팀 가운데 패배가 전무한 팀은 광주도시공사가 유일하다.

강경민(11골·4어시스트)이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골키퍼 박조은은 17골을 막아내는 등 47.22%의 방어율로 승리를 지켰다. 강경민은 경기 MVP에 선정됐다. 김지현(5골), 정현희(4골·3어시스트), 송혜수(3골·2어시스트)도 화력을 지원하면서 무패행진을 이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3일 오후 4시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삼척시청과 경기를 갖고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IA, 더더지는 실전체제 전환

악천후 여파 오키나와 한화전 연습경기 무산...내일 삼성전

미국 LA에서 눈보라는 만난 KIA 타이거즈의 실전 체제 전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예정됐던 KIA와 한화 이글스의 연습경기가 취소됐다. KIA는 당초 24일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의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친

뒤 26일 오키나와로 이동해 실전을 통한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산에서 LA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악천후를 만나면서, 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두 차례 착륙 시도 끝에 인근 공항으로 우회해야 했던 KIA의 한국 도

착도 지연됐고, 예정됐던 오키나와행 비행기에도 오르지 못했다. 결국 KIA는 두 주로 나눠 27-28일 오키나와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됐고, 주전 경쟁의 시작점이었던 한화전은 취소됐다.

앞서 KIA는 지난 21-22일 애리조나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의 연습경기도 날씨 영향으로 치르지 못하면서 19일 WBC와의 연습경기 단 한 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마음이 바빠진 KIA는 3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다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